

# “500년 전통 흥과 멋”...영광법성포단오제 18일 개막

오는 21일까지 나흘간 법성포 일원서 자연·전통 조화 ‘화조풍악’ 주제로 선유놀이·용왕제·뮤지컬페스티벌 등 먹거리·DJ 공연 결합 ‘난장마당’도

영광군을 대표하는 500년 전통의 국가무형유산 ‘영광법성포단오제’가 화려한 막을 올린다. 7일 영광군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과 법성포뉴타운 일원에서 ‘2026 영광법성포단오제’가 열린다. 올해 단오제는 꽃과 새, 바람과 즐거움이 어우러진다는 의미의 ‘화조풍악(花鳥風樂)’을 주제로 자연과 전통, 사람이 하나 되는 법성포만의 흥과 멋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진다. 법성포단오제는 고려시대 조창과 조선시대 조기파시(波市) 문화에서 태동했다.

호남 지역의 핵심 물류 중심지였던 법성포로 상인들이 모여들며 형성된 단오 풍습에 백제의 불교문화와 지역 토속신앙이 결합해 고유의 제전 문화로 발전했다. 이후 ‘술쟁이’라 불리는 숲에서 주민들이 정성껏 음식을 나누며 화합을 다지는 공동체 문화의 상징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이번 축제는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세대를 아우르는 풍성한 콘텐츠로 채워진다. 난장트기, 용왕제, 선유놀이 등 국가무형유산 지정 행사를 비롯해 당산제, 산신제가 거행되며 단오제 씨름대회, 전국 연날리기 대회, 장포 머리 감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 체험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또한 지역 청소년과 문화예술인이 꾸미는 공연 콘텐츠도 강화됐다. 퓨전 국악, 단오 풍물 버스킹 등 전통과 장르를 융합한 무대가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지며, 20일 열리는 K-뮤지컬페스티벌 ‘꿈’은 대중가수와 댄스·록 공연이 어우러져 한여름밤의 뜨거운 열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롭게 조성된 ‘난장마당’으로, 기존 행사 위주의 공간 구성에서 벗어나 먹거리와 휴식, 공연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감성 포토존과 푸드트럭존을 전진 배치했다. 이곳에서는 ‘야 놀자’를 주제로 한 DJ 공연과 함께 영광굴비, 천일염 등 지역 특산물 홍보 부스가 운영되며, 다문화 의상 체험 등을 통해 세계 문화와 교류하는 화합의 장소 펼쳐진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행사장 곳곳을 돌아보는 스탬프 투어, 무료 사진 인화 키오스크, 생활 안전 체험, 어린이 놀이터, 휠체어·유모차 대여소 등을 대폭 확충해 관람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축제의 서막을 여는 개막식은 18일 오후 6시30분 법성포뉴타운 문화광장에서 열리며, 이어 ‘오백년의 흥, 천년의 소리’ 개막 축하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축제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폐막 공연 ‘여름밤의 꿈, 단오로 물들다’와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가 나흘간의 대장정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영광군을 대표하는 500년 전통 ‘영광법성포단오제’가 오는 18일부터 나흘간 법성포뉴타운 일원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법성포단오제 중 용왕제 행사 모습. <영광군 제공>

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올해 법성포단오제는 전통과 현대, 세대와 문화를 잇는 체류형 문화관광 축제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올여름 영광 법성포에서 500년 전통의 깊은 멋과 특별한 추억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 해남군 “형형색색 수국의 향연으로 초여름 즐겨요”

포레스트 수목원서 수국축제 개최 내달 6일까지 400품종 개화 물결

해남군의 ‘포레스트 수목원 (forest)’이 형형색색의 수국으로 물들며 초여름 방문객들을 초대한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현산면 봉동마을에 위치한 포레스트 수목원에서 오는 12일부터 7월6일까지 한달여간 ‘2026 땅끝해남 수국축제’가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이곳 수국정원은 국내 최대 규모로, 산 능선을 따라 400여품종, 8천여그루의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수국이 심어져 있어 장관을 이룬다. 현재 조생종 수국이 개화해 숲길을 물들이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는 정원 전체가 만개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또한 강산성일 때는 청색, 알칼리성일 때는 붉은색을 띠는 등 토양 성분에 따라 다채롭게 변하는 수국의 신비로운 색채도 감상 포인트다. 수목원 내부에는 수국 기차길 등 특색 있는 포토존이 곳곳에 마련돼 있어 초여름의 청량함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기려는 관광객들에게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2019년 해남 최초 민간 사립수목원으로 등록된 포레스트 수목원은 6만여평의 숲에 1천400여종의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다. 식물학 전공자인 김건영씨 부부가 전문 지식



을 바탕으로 가꾸고 있으며, 산림청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과 국립수목원 ‘국가희귀·특산 식물 보전기관’으로 지정돼 국가 생물자원 보전과 증식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남=박필용 기자>

## 신안군, 병충해 방지 ‘뽕씨 온탕 무료 소독’ 성료

13개 읍·면 847농가 참여 30.5t 방제 지역 핵심 영농 지원 정책 자리매김

신안군은 “최근 벼 재배 농가의 병해충 예방과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뽕씨 온탕 소독 무료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4월1일부터 5월29일까지 13개 읍·면 농기계대상사업소에서 제공됐으며, 올해는 847농가가 참여해 30.5t의 뽕씨를 소독했다. 뽕씨 온탕 소독은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뜨거운 물로만 뽕씨의 병해충을 소독하는 친환경 농법이다. 초기 생육을 안정화해 쌀의 품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장비 임대 등 농가의 직접적인 비용 부

담을 덜어줘 소규모 농가들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서비스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총 6천89농가, 누적 1천708t의 소독 실적을 달성했다. 신안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무상 도입한 온탕 소독 서비스가 농가들의 두터운 신뢰 속에 핵심 영농 지원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며 “농가들이 방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 영암군, 통합돌봄 ‘방문약물관리 사업’ 추진

군약사회 협력 다제약물 복용 점검 지역 통합돌봄 건강 안전망 구축

영암군은 7일 ‘약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해 영암군약사회와 협력해 통합돌봄 ‘방문약물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통합돌봄추진단이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으로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약



사가 직접 찾아가 복용 상태를 점검하고 중복 약물 확인, 부작용 모니터링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영암=나동호 기자>

영암군약사회 소속 권역별 약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가구를 방문해 복약 상담을 진행했다. <사진> 서비스를 받은 한 어르신은 “먹는 약이 많아 헷갈렸는데 약사가 직접 찾아와 설명해 주고 정리해 주니 안심이다”고 말했다. 김미진 영암군약사회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약 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유미경 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이 사업은 지역 약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돋보이는 든든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대상자 발굴과 사례 관리를 강화해 통합돌봄 건강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 무안군, 친환경농업 가치·중요성 알린다

오는 13일 ‘2026 유기농데이’ 개최 남악중앙공원서 47개 단체 참여

무안군은 7일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유기농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2026 유기농데이’ 행사”가 오는 13일 무안 남악중앙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친환경농업협회가 주최하고 무안군친환경농업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남·광주 새로운 출발, 2026 유기농데이’를 슬로건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무안=김상호 기자>

행사장에는 전남 21개 시·군 친환경농업협회와 한살림, 아이쿱생활 등 총 47개 단체가 참여해 대대적인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방문객들은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농 가공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유기농 쌀 떡메치기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과 감사장이 수여되며, 미래 세대의 친환경 인식 확산을 위해 초·중·고교생 100개 팀이 환경 지식을 겨루는 ‘유기농 장학퀴즈’가 화려한 축하공연과 함께 펼쳐진다. <무안=김상호 기자>

##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해역 환경 데이터’ 구축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용역 선정 김 생산해역 환경 모니터링 등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국산 김 수출 확대에 발맞춰 생산해역의 체계적인 환경 모니터링과 안전성 확보에 앞장선다. 7일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이 발주한 ‘전남 일원 김 생산해역 시료 확보 및 전처리’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센터는 총사업비 4억5천만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해당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전남 지역 4개 권역

에 위치한 60개 정점을 대상으로 연간 10회씩 해수와 물고기 시료를 채취한다. 수집된 시료를 바탕으로 환경 기조 항목을 조사하고 위해 요소 분석을 위한 전처리 업무를 수행해 생산해역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전남은 전국 김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최근 K-푸드 열풍과 함께 김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산해역의 철저한 안전성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센터는 이번 연구를 통해 수출국의 엄격한 안전성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전남 김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 완도해양치유센터, 현장학습·수학여행 명소 ‘각광’

개관 후 50개교 1천여명 방문 맨발 걷기·수중 운동 등 다채

완도군의 대표 웰니스 관광지인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전국 각지 학교의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최지지로 부상하고 있다. 7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제주 대기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 코스로 센터를 방문하는 등 개관 이후 지금까지 총 50개 학교, 1천706명의 학생이 이곳을 찾아 해양치유의 효능을 체험했다. <사진>

센터의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습스트레스 완화와 심신 치유에 도움을 주며 새로운 형태의 ‘웰니스 수학여행’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센터는 학생 방문객을 위해 ▲팔라소폴 전문수중 테크 프로그램 ▲정정 명사십리 해변 오감 자극 맨발 걷기 등 교육과 힐링을 결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군은 전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해양자원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군에는 체류형 방문객 유치라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특별히 거두고 있다. <완도=윤보현 기자>